

독일철도, 7년 만의 흑자 전환과 역대 최대 투자로 철도망 현대화 가속

해당국가	독일	기관(기업)	독일철도(DB)	동향분야	시장	국토교통 기술분류	철도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□ 독일철도(DB)는 2026년 상반기 7년 만에 세후 흑자로 전환하고, 역대 최대 규모의 철도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며 경영 정상화와 노후 철도망 현대화를 추진

- 여객사업 실적 개선과 영업이익 회복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며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상반기 세후 흑자를 달성
 - 상반기 세후 이익은 1억 4,7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7억 6,000만 유로 적자에서 크게 개선됐으며, 그룹 매출은 1.8% 증가한 136억 유로를 기록
 - 조정 영업이익(EBIT)은 전년 대비 6억 5,000만 유로 이상 개선된 4억 1,500만 유로를 기록했으며, 2026년 연간 매출 약 280억 유로와 영업이익 약 6억 유로를 전망
- 노후 철도망의 개보수와 현대화를 위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며 철도 인프라 개선을 가속화
 - 상반기 총투자는 전년 대비 18% 증가한 87억 유로로 역대 최대 반기 투자액을 기록했으며, 대부분을 노후 철도 인프라 개보수와 현대화에 투입
 - 자체 자원 기반 순투자도 89% 증가한 34억 유로를 기록했으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순금융 부채는 연초 대비 약 10억 유로 증가한 216억 유로를 기록

□ 철도 이용수요와 사업부문별 실적이 개선되는 가운데 대규모 선로 개보수를 병행하여 노후 철도망 현대화와 운행 품질 개선을 추진

- 철도 이용객 증가와 장거리 여객사업의 흑자 전환을 바탕으로 여객 부문의 회복세가 확대되고, 화물 부문도 적자 규모를 크게 축소
 - 상반기 철도 이용객은 9억 6,000만 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약 1,700만 명(1.8%) 증가했으며, 지역 여객운송 부문 매출도 4% 증가
 - 장거리 여객 부문은 영업이익 1억 4,800만 유로로 흑자 전환하고, 화물 부문은 산업 수요 부진에도 영업손실을 100만 유로 수준까지 축소
- 대규모 선로 개보수와 주요 철도 회랑 현대화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, 공사 확대에 따른 정시율 저하 등 운행 품질 개선을 주요 과제로 관리
 - 연간 계획된 약 2만 8,000건의 공사 중 상반기 약 1만 4,000건을 완료하고, 주요 철도 회랑을 중심으로 선로와 관련 시설의 집중 개보수를 추진
 - 대규모 공사와 기상 여건 등의 영향으로 장거리 열차 정시율은 59%에 머물러, 인프라 현대화와 함께 운행 안정성과 정시성 개선이 향후 핵심 과제로 부각

※ 출처 : 독일철도(2026.07.30), Deutsche Bahn: Ergebnis nach Steuern erstmals seit 2019 mit 147 Millionen Euro wieder positiv